

3) 후릿골, 후릿개, 후리초

후릿그물 방식으로 고기를 잡던 곳이라 하여 붙었던 이 마을의 옛 이름이다.

제10절 후포2리(厚浦二里)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은 후포1리와 인접하고, 서쪽은 후포7리이며, 남쪽은 물양장(物揚場)이 있다. 북쪽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역으로 후포의 중심부다. 옛날에는 정어리의 대풍(大豊)으로 정어리 공장이 다수 있었으며, 이는 대부분 붉은 대게 가공공장으로 변신하였다. 마을회관은 2007년에 건립되었다.

2. 마을의 역사

1944년에 후포리에서 분구(分區)되어 후포2리가 되었다. 1956년[면조례 제15호]에 평해면 후포출장소에 속하였다. 1980년 12월 1일[대통령령 제10050호]에 평해면이 읍(邑)으로 승격되어 평해읍 후포2리로 되었으며, 1986년 3월 27일[대통령령 제11874호]에 후포출장소가 면으로 승격되어 후포면 후포2리로 되었다. 1970년 후포5리가 분구(分區)되었고, 1992년 후포7리가 분구(分區)되었다.

3. 가구 분포

총 206세대가 거주하며 김해 김씨(金海金氏)와 경주 이씨(慶州李氏), 밀양 박씨(密陽朴氏), 순흥 안씨(順興安氏)가 주 성을 이루며, 다양한 성씨가 분포하고 있다.

4. 마을의 특징

1) 동제(洞祭)

후포리에서 분구(分區)되기 전과 같이 분구된 후에도 합동으로 제사를 올리고 있다.

2) 영등

음력 2월 1일을 영등이라 하여 이날은 출어(出漁)하지 않고 이웃과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하루를 즐긴다.

5. 전설

1) 동넛골

방파제(防波堤)가 축조(築造)되고 통조림공장이 세워진 이후 이 마을 안에 동넛골이라는 지명(地名)이 생겼다.

2) 웅굴재

마을 북쪽의 산허리에 있는 지역으로 후포항의 중심부에 있는데 우물(井戶) 뒤편에 있다 하여 웅굴재라 부르며 후포항의 중심이 되고 있다.

제11절 후포3리(厚浦三里)

1. 마을의 자연환경

서남쪽은 7번 국도에 접하고 사방(四方)이 야산(野山)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마을 앞 계곡에서 흐르는 물은 국도변(國道邊) 다티고개에서 흐르는 물과 합류(合流)하여 동쪽으로 흘러 후포5리를 거쳐 삼울2리 앞바다로 흐르고 있다. 마을회관은 2006년에 건립되었으며, 경로당과 공용이다. 울진문화예술회관과 울진남부도서관이 있다.

2. 마을의 역사

1944년에 후포리에서 분구(分區)되어 후포3리로 되었고, 1953년 1월 19일에 평해면 후포출장소 관할이었다. 1980년 12월 1일[대통령령 제10050호]에 평해면이 읍으로 승격되어 평해읍 후포3리가 되었다. 1986년 3월 27일[대통령령 제11874호]에 후포출장소가 면(面)으로 승격되어 후포면 후포3리로 되었다.